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다.
남에게 상처줘선 안 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6월 29일)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AI · 4차산업 시대 명상, 변화 이끈다

한국명상총협회, 8월 29~31일 대한민국 명상포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AI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에서 명상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명상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명상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동국대 일원서 '2019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개최한다. 명상포럼은 명상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추구하는 한국명상총협회의 출범 첫 공식행사다. 현재 협회에는 참불선원과 한국MBSR연구소, 힐리언스 선마을, VYG요가글로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와 BBS불교방송이 공동 주최한다.

대한민국 명상포럼 국내 명상계에서 최초로 마련된 석학들의 대규모 강연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으로 불리는 AI 인공지능을 넘어 IT 초지능 명상에 초점을 맞춘 명상과 인성교육법을 모색하고, 종교가 아닌 명상을 소재로 한국의 정신문화를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불교와 심리학, 의학, 뇌과학 등 각 분야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단연 세계적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키텍트이자 명상가인 킴킴(Kim Kim)이다. 그는 마지막날 빅 데이터와 불이(不二)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뿐만 아니라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과 조효남 서울불교대학원 석좌교수도 각각 '명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연의학과 생활건강' '명상과 정신과학의 상응성'을 주제로 강연한다.

명상포럼은 29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서 개회식으로 문을 연다. 입재법문은 금강선원 조실 혜거 스님이 맡는다. 오후 1시 기조법문은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의정 스님이 맡으며, 바로 이어 명상실참이 진행된다. 이후 분과별로 각 3인의 강연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펼쳐진다.

1분과는 대각전, 2분과는 문화관 311호, 3분과는 문화간 315호에서 각각 진행된다. 먼저 1분과는 29일 오후 3시 직지사 선원장 의성 스님이 명상법을 강연한다. 2분과서는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이 '인공지능 로봇스님과 간화선'을, 3분과는 안희영 한국MBSR 소장이 '서구사회의 마음챙김 혁명'을 주제로 강의한다.

30일에는 1분과서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의 '잠깐멈춤 명상법', 대흥사 유나 정찬 스님의 '시(詩)로 읽는 명상의 요체',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선 명상 수행법의 길라잡이 〈선가귀감〉'이 이어진다. 2분과는 전현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거시적, 미시적 관찰을 통해 본 존재의 본질'. 수도암선원 선현 종묵 스님의 '선수행 명상방법론의 역사', 대승사 선승 정과 스님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가 진행된다. 3분과는 김열권 위빠사나붓다선원장이 '붓다의 깨달음 호흡명상법',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이 '마하화두선과 MTV통합명상' 등을 발제한다. 분과는 각각 강의 80분, 질의 30분, 휴식 10분으로 구성된다.

불교 · 심리학 · 의학 등 분야
스님과 전문가들 대거 참여
동국대 일원서 다양한 강의
5000여 명 규모 걷기명상도

무엇보다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정은 마지막 날 열리는 종합토론이다. 한국명상총협회장 각산 스님과 조효남 교수, 이시형 원장, 마이크로소프트사 킴킴의 발제에 종묵 스님과 정과 스님, 전현수 전문의, 백성호 중앙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명상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현 시대에 맞는 명상의 의미를 짚어본다.

행사에 앞서 7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각산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효율이다. 아무리 명상이 의미 있다고 해도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인간의 정체성 변화로 요약되는 지금 시대에 한국인의 생활에 맞는 한국식 명상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명상포럼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에는 '남산걷기명상'이 진행된다. 동국대 운동장에서 남산순환둘레길 일대를 걷는 걷기명상은 각산 스님이 지도를 맡는다. 걷기명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명상포럼 2박3일 참가비는 1인당 16만원이다. (02)451-0203



"내 물총을 받아라"… 사찰은 '워터파크'

지난해 사찰 내 수영장을 개설해 불교계 안팎으로 반향을 일으킨 서울 종로 조계사가 올해도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수영장을 개장했다. 7월 21일 조계사 뒷마당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에 펼쳐진 여름불교학교 물놀이 마당에서 어린이 불자들이 물총을 쏘며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조계사

진각종 제 13대 총인 경정 정사 추대

총인추대위 25일 회의서
8월 1일부터 5년 간 임기



진각종 제13대 총인에 경정 정사〈사진〉가 추대됐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는 7월 25일 서울 총인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정 정사를 추대했다.

이날 인의회 의원과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으로 구성된 총인추대위원에서 투표선출 방식에 의거해 경정 정사를 5년 임기의 총인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8월 1일부터며, 법통승수식을 거행한 후 직무에 임하게 된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 간사 관명 정사(총무부장)는 총인추대위원회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진각종 제13대 총인으로 경정 정사를 추대위원회 의결 절차에 따라 추대했다"면서 "진각종의 법통(法統)과 교법(教法)의 신성(神聖)을 상징하고 심인법통(心印法統)을 승수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 총인 추대법회는 추후 일정에 따라 봉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총인법에는 '총인추대는 총인추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자격은 '현직 또는 기로로서 행계 2급 종사 이상, 연령 60세 이상에서 75세 이하인 스승을 총인으로 추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각종 제13대 총인으로 추대된 경정 정사는 1948년 경북 영천 출생으로 1976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1981년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인도 델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정 정사는 종단 입문 후 진선여중 정교, 행원심인당 주교, 상륜심인당 주교, 불승심인당 주교, 신덕심인당 주교, 대전교구청장, 교육원 교법부장, 제7대 종의회 의원,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박물관장, 대학원장, 밀교문화연구원장, 부총장 등을 거쳤다. 또한 제10, 11대 교육원 교육원장, 진각종유지재단 이사,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본부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5년 4월 종사행계를 품수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계 방송, 시청 평가 약진

BBS 종교방송 점유율 3위, BTN SKY평가 종교부문 1위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 이하 BBS)과 BTN불교TV(대표 구본일, 이하 BTN)가 방송평가에서 약진하고 있다.

B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서 10개 종교방송 중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BS의 시청점유율은 0.093%로 종교채널 중 1위인 CBS의 0.123%와 CTS의 0.101%에 뒤이었다. BTN은 0.084%로 4위를 차지했다.

시청 점유율은 전체 TV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00여 개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해 연 1회 이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BTN은 스카이라이프 방송채널 평가에서 종교부문 1위, 종합 9위에 올랐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총 146개 채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5월 방송분에 대한 분야별 '채널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BTN은 종교 분야에서 최상위 'A' 등급에 선정됐다. 스카이라이프의 이번 평가는 고객 이용율(30%) · 콘텐츠경쟁력(30%) · 비용효율성(10%) · 기타(30%)등의 항목을 평가했으며, 장르 내 순위에 따라 상위부터 A~E 까지 5등급으로 분류했다.

BTN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급속하게 다변화된 미디어 시장과 불자 인구의 정체기 속에서 BTN이 종교채널 중 채널평가 1위로 'A' 등급 선정과 채널종합 9위에 오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감사의 큰 절 드리며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지난 태허당 광우 명사 장례 기간에 조문해 주신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엎드려 큰 절 올립니다.
은사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에 경황이 없어 절차와 예법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결제철이고 백중 기도철인데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분들의 은혜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며 정진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중히 찾아뵙고 인사 올려야 하나 지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돌보시고 정진이 무장무애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9년 7월 25일
상주 대표 정 목

삼가 큰 절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8길 57-16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사 | Tel. 02)742-1231